

제주 잠녀 불굴의 의지 ‘역사’가 되다

[제주잠녀] 제4부 ‘잠녀, 지키다’ <17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등록 : 2011년 01월 19일 (수) 09:57:37
최종수정 : 2011년 01월 19일 (수) 09:57:3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지난 2005년 조성 완료한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광복 50주년 1995년 결성...15년 가까이 잠녀 정신 계승·발전 노력 계속
국가유공자 선정 등 발로 뛰어 "잠녀문화 평가 중요성 제대로 인식해야"**

1931년, 일본인 어업조항 서기와 중간 상인들이 짜고 착취와 횡포가 심했던 시기, 급기야 하도리 잠녀 대표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고순효, 김계석 등 대표들은 선생님들과 일을 벌이기로 했다. 일본 순사들 몰래 바다로 나서기는 했지만 김병인가 동복(골막)부근에서 파도 때문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다시 1932년 1월 7일 세화오일장, 하도리 잠녀 수백명이 모였다. 연설도 잘 하고 글씨도 잘 썼던 김계석(김옥련 생전 증언)도 이때 "너희들이 총칼로 대항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대항한다" "일본은 물러가라" 등등의 내용으로 외쳤다.(제민일보 2007년 11월 16일 7면 허영선이 만난 '사람'-제주해녀항쟁의 주역 '95세 최고령 생존자 김계석 할머니'중)

같은 해 1월 12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5일장, 호미와 창을 들고 허리에는 메밀떡 전대를 찬 흰 저고리 검은 치마의 잠녀 10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제주도사인 다구치가 순시차 구좌읍을 통과하는 날이었다. 장터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도사가 도착하자 잠녀들은 차를 가로막고 호미와 창을 휘두르며 "일본은 물러가라" "조합 재정을 공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도사가 탄 차량은 잠녀들이 던진 돌로 망가졌고 다구치는 세화주재소로 도망쳤다.



간신히 빛 본 제주해녀항일운동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제주시 구좌읍·성산읍·무도면 일대에서 펼쳐진 '제주 해녀 항일항쟁'은 연인원 1만7000여명이 참여, 238회의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한 우리나라 최대 어민운동이자 여성운동이다.

당시 잠녀들은 제주도사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어업조합이 전복과 미역 등 해산물을 헐값에 강탈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며 착취하자 이에 대항해 생존권을 외치며 일어섰다.

▲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들이 다녔던 하도강습소 제1회 졸업기념 사진. 왼쪽 왼쪽부터 홍문봉 부춘화 김봉혁 김옥련 송순옥 부덕량 고순효(미상 졸업생), 마랫줄 왼쪽부터 문부현 부태현 김남석 김○○ 김태운은 교사다. 가운데 줄에 있는 청년은 부춘화의 오빠 부승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건으로 보는 제주 역사」 중>

제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근대사의 큰 획을 그었던 제주 잠녀들의 항일 항쟁은 그후 역사 속에 묻혀 버렸다. 투쟁의 선두에 섰던 잠녀의 유족들은 70여년 가슴 아픈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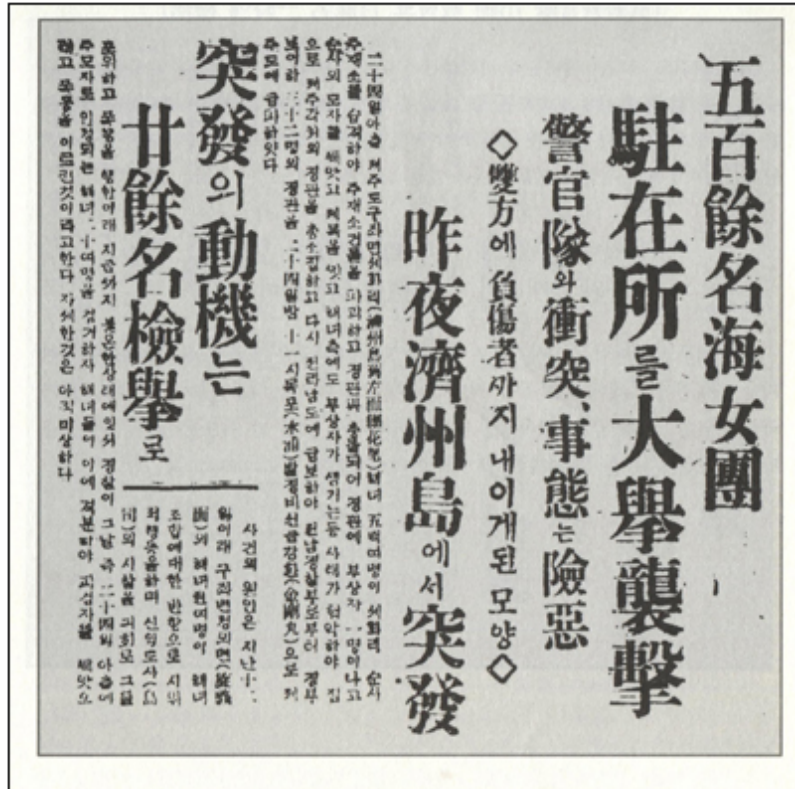
이들의 흔적이 역사가 된 배경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었다.

1995년 결성된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는 2000년부터 해녀 항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위원회는 2003년 부춘화 잠녀(여·1995년 작고), 김옥련 잠녀(여·2005년 작고)와 혁우동맹원 문도배(1953년 작고)·한원택(1938년 작고)씨 등 4명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광복 60주년을 맞아 해녀 항일운동배후 주도자인 신재홍(1946년 행방불명)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고 '혁우동맹'의 핵심조직원이었던 채재오(1986년 작고)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항일운동의 잠녀 주동자인 부덕량(여·1939년 작고)씨에게도 건국포장이 수여되는 등 지금까지 11명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해녀항일운동에 대한 평가가 더뎠던 것은 사회주의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동안 정부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회도서관과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



▲ 1932년 1월 제주 잠녀 1500명이 참여한 시위와 검속경관대 습격을 다룬 조선일보 1932년 1월 26일자 신문<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중>

잠녀 정신 살아있는 역사로

지난 12일 제주해녀항일운동 79주년 제17회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이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과 구좌읍 동녘도서관 등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내년 80주년을 앞두고 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성역화 사업을 공식 선언했다. 매년 해녀항일운동 기록작업과 역사적 재평가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또 이뤘던 위원회인 만큼 이번 성역화 작업에 거는 기대 역시 크다.

2006년 해녀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완성된 구좌읍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선양하기 위해 9년여의 시간과 총사업비 48억4800만원 상당이 투입됐다.

앞서 1998년 세워진 기념탑은 이 일대를 지나는 도민과 관광객의 이정표로 우리나라 근대사의 현장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김전근 위원장에 이어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현 위원장(75)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해녀항일운동은 한국여성운동사에도 족적을 남기는 등 정신 계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들의 노력과 투쟁이 죽은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주 잠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현직 잠녀들에게 '제주해녀상'을 수여하는 것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장치"라며 "누구나 원하는 아름다운 직업도 아니고 고령화 등으로 맥이 끊길 위기에 있지만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정신을 이어가는 일은 비단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 이뤄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잠녀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 먼저



▲ 이재현 위원장

이 위원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조직개편으로 공원내 해녀박물관을 해양수산국으로 이양한 데 대한 서운함이 가장 크다.

이 위원장은 "예산이나 정책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잠녀들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집대성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녀박물관은 지난 제주 잠녀들의 기억과 문화를 간직하는 공간이자 기념하는 장소로 보다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녀와 잠녀 문화를 기술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콘텐츠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요구해왔던 위원회였던 만큼 섭섭한 마음을 감추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잠녀의 역할을 두고 볼 때 1차산업에서의 위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역사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반해 잠녀문화에 대한 평가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전승·보존·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체육부장·고미 문화부장